

## 개정된 가치묘사질문지(PVQ-R) 한국판 타당도 연구\*

최 정 원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Schwartz의 개정된 가치 이론(2012)에 근거하여 보편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정된 가치묘사질문지(PVQ-R) 한국판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5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PVQ-R, Schwartz의 가치조사질문지(SVS) 및 유교가치 척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개 가치 척도는 적절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각 척도의 점수와 각 문항 점수를 다차원 척도 분석한 결과, 개정된 가치 이론에서 가정한 19개 가치의 원형 구조 배열이 확인되었으며, 4개의 상위 가치 구조의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4개의 상위 가치 별로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상위 가치의 위계적 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중다특질-중다방법 분석을 통한 PVQ-R과 SVS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가 전반적으로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가치우선성의 순위를 Schwartz 등의 10개국 자료(2012)와 비교한 결과, 국내 자료의 평균치가 전반적으로 낮고 점수간 차이가 근소하였으나 순위 배열은 대체로 일치하였다. 유교가치는 일반적으로 자기초월 가치 및 보수 가치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고양 가치 및 변화에 대한 개방성 가치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의 의의 및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Schwartz의 가치 이론, 가치묘사질문지, 가치우선성, 유교가치

\* 이 논문은 2013년 가톨릭대학교 교비 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이영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산43-1

Fax: 02-2164-4252, E-mail: yhlee@catholic.ac.kr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은 가치에 관한 물음이다. 가치에 관한 연구는 가치의 개념, 구조, 체계를 밝히고 측정하는 것으로부터(예: Rokeach, 1973; Schwartz, 1992), 가치와 개인의 다양한 태도, 특성,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예측하고(예: Schwartz, 1996; Verplanken & Holland, 2002), 학교폭력, 중독 및 심리적 증상과 가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예: Menesini, Nocentini, & Camodeca, 2013). 또한 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합의(value consensus)와 삶의 질이나 행복간의 관계가 연구되고 있으며(예: Sortheix, Olakivi, & Helkama, 2013), 더 나아가 정치, 경제, 교육, 안보, 복지, 공공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가치의 영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예: Arikian, Ben-Nun Bloom, 2014; Schwartz, 2011). 한편, 국내에서는 가치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많지 않고, 내용면에서도 가치관에 대한 실태조사나 시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양상(예: 나은영, 차재호, 1999; 한덕웅, 이경성, 2003), 한국사회에 고유한 가치에 대한 확인과 측정(예: 류수영, 2007; 정진곤, 이관춘, 1997)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한정된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치에 관한 보다 폭넓은 연구들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가치를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치 이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개정된 가치묘사질문지(Portrait Values Questionnaire-Revised: PVQ-R; Schwartz, Cieciuch, Vecchione, Davidov, Fischer, Beierlein, & Konty, 2012)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함으로써,

국내에서도 가치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가치의 개념과 그 중요성

가치는 행위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인 또는 집단이 지니고 있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관념으로서 삶의 방향, 취향의 기반이 되며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안내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 또는 준거로서의 가치는 행위, 정책, 사람 및 사건 등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판단을 안내하는 지침이 되며,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보는 가치에 따라 옳고 그름, 정당성, 행위의 가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Feather, 1995; Kluckhohn, 1951; Rokeach, 1973; Schwartz & Bilsky, 1987, 1990). 가치는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및 기타 인접 분야를 포괄하는 대부분의 사회 과학 분야 내의 핵심적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과 사회의 특성을 밝히거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고 태도와 행동의 동기적 기초를 설명하는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Durkheim, 1893/1964; Schwartz, 2006; Weber, 1905/1958). 개인적 수준에서 가치는 성격을 특징짓는 하나의 축(hub)이며, 자존감의 유지와 고양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 수준에서 가치는 인종이나 민족적 차별, 정치적 이념, 사고, 논리, 행동, 활동, 사회적 정의(justice)와 같은 폭넓은 사회적 태도와 행동 연구의 주요한 독립 변수가 된다(Ball-Rokeach, Rokeach, & Grube, 1984). 교육이나 심리치료 맥락에서도 가치는 주목을 받아왔으며 최근에 그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덕적 가치로 대표되는 다양한 덕목(virtues)이나 가치들이 인격 교육의 핵심적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 즉, 진실성(truthfulness), 공감, 정의, 용기, 의지, 자기 통

제 및 자기 통합성과 같은 개념들이 도덕적 가치이자 인격의 특성으로서 간주된다(Lepsley & Power, 2005). 한편, Frankl의 의미치료를 보다 확장한 의미 중심치료에서는 삶의 의미와 가치간의 관련성에 주목하며 성장과 변화의 요건으로서 가치 있는 삶의 추구하고 실현을 가정하였다(Little, 1998; Wong, 1998a, 1998b). 인지치료의 제 3동향이라 할 수 있는 Hayes의 수용전념치료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 즉, 가치에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치료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치료 상황에서 개인

의 가치의 문제를 보다 중요하게 다룬다(Hayes & Smith, 2010).

### Schwartz의 가치 이론

1990년대 초반 Schwartz는 가치에 관한 기존의 발견들을 분석, 평가, 통합 및 검증하는 것을 통해 인간 가치의 보편적 심리적 구조에 관한 이론을 주장하였다(Schwartz, 1992, 1994). 이론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 보편적인 가치들이 존재한다. 초기에는 그 가치를 7

표 1. Schwartz의 19개 가치와 동기적 목적의 관점에서의 개념적 정의

가 치	동기적 목적의 관점에서의 개념적 정의
자기결정-사고(Self-direction-thought)	자신의 아이디어나 능력 함양을 위한 자유
자기결정-행위(Self-direction-action)	자신의 행위 결정에 대한 자유
자극추구(Stimulation)	흥분, 새로움, 변화
쾌락주의(Hedonism)	즐거움과 감각적 만족
성취(Achievement)	사회적 기준에 따른 성공
권력-지배(Power-dominance)	사람들에게 통제를 행사하는 힘
권력-자원(Power-resources)	자원과 사회적 자원에 관해 통제를 행사하는 힘
체면(Face)	공적 이미지의 유지와 모욕을 피할 수 있는 안정감과 힘
안전-개인적(Security-personal)	본인과 직결된 환경 내에서의 안전
안전-사회적(Security-societal)	보다 폭넓은 사회의 안전과 안정
전통(Tradition)	문화, 가정 및 종교적 전통의 유지와 보존
동조-규칙(Conformity-rules)	규칙, 규범 및 형식적 의무에 대한 순응
동조-대인적(Conformity-interpersonal)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피함
겸손(Humility)	세상의 큰 틀 내에서 자신이 미미하다는 인식
보편주의-자연(Universalism-nature)	자연 환경에 대한 보존
보편주의-관심(Universalism-concern)	인류의 평등, 정의 및 보호에 대한 헌신
보편주의-관용(Universalism-tolerance)	본인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용과 이해
박애-돌봄(Benevolence-caring)	가까운 이들의 복지에 대한 헌신
박애-신뢰성(Benevolence-dependability)	가까운 이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개로 구분하였고, 점차 10개, 2012년 개정 모델(Schwartz et al., 2012)에서는 19개로 확장하였다(표 1 참조). 세분화된 가치들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욕구(needs), 협력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욕구, 집단의 생존과 안녕의 욕구라는 인간의 세 가지 보편적 욕구로부터 출발한다(Schwartz, 1994). Schwartz의 가치 이론의 중요한 특징은 보편적 욕구에 기초한 가치들은 세 가지 원리에 따라 하나의 원형 구조(circular structure)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원리는 가치들 간의 양립가능성(compatibility)과 갈등으로서 이에 따라 19개 가치들은 4개의 상위 가치로 군집화 된다(변화에 대한 개방성 대 보수, 자기고양 대 자기초월). 두 번째 원리는 가치가 제공하는 이익

(interest)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이냐에 따라 개인적 초점과 사회적 초점으로 구분된다. 세 번째 원리는 가치와 불안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자기 보호(self-protection)에 기초한 불안 회피와 성장(growth)에 기초한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로 구분된다. 각각의 가치들은 기저 하는 동기의 유사성이 높으면 인접하고 상이할수록 멀리 위치한다(그림 1 참조). 즉, 거리상 인접한 가치들은 유사한 동기적 특성을 공유한다(예: 자기결정 가치와 자극추구 가치-새로움과 숙달에 대한 선천적 흥미, 자극추구 가치와 쾌락주의 가치-정서적으로 유쾌한 각성에 대한 바람). 가치와 관련된 특정 행동은 어떤 가치와는 갈등을 일으키고 또 다른 가치와는 양립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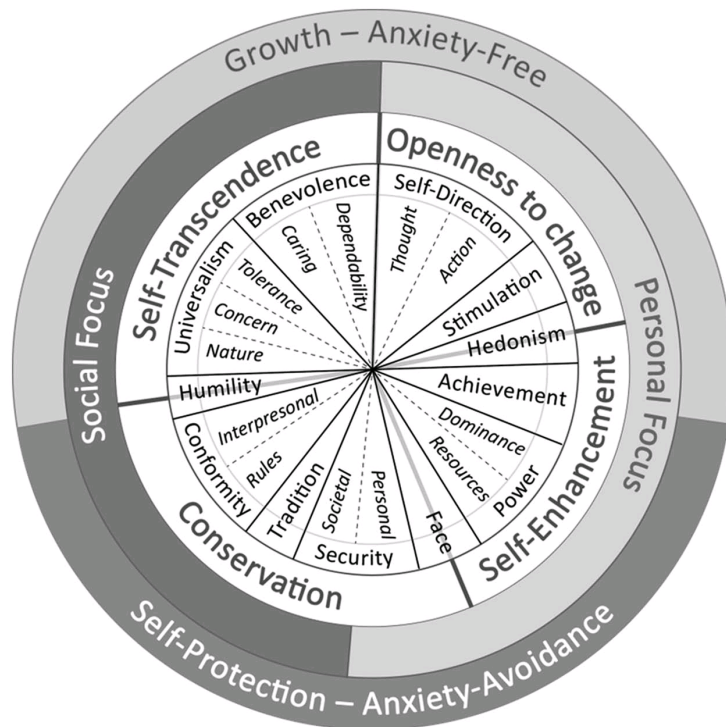


그림 1. 개정된 모델에 따라 수정된 19개 가치의 연속체 모형(Schwartz et al., 2012)

수 있기 때문에 Schwartz는 기본적으로 가치들 간의 관계가 역동적 양상을 띤다고 보았다(예: 자기결정 가치와 관련된 권위에 대한 도전은 동조 가치와 갈등을 일으키는 한편, 자극추구 가치와는 양립 가능함).

### 선행 연구 결과와 이론의 발전

지난 20여 년 동안 Schwartz(1992)의 가치 이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양한 문화권으로부터 도출된 표본의 약 95%에서 10개의 가치와 원형 구조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예: Schmitt, Schwartz, Steyer, & Schmitt, 1993; Schwartz & Boehnke, 2004; Schwartz, Melech, Lehmann, Burgess, Harris, & Owens, 2001; Schwartz & Sagiv, 1995). 또한 정서적 공감, 불안(걱정), 주관적 안녕감, 애착의 유형, 권위주의적 태도, 이타행동을 포함한 친사회적 행동, 정치적 지향과 투표 참여, 자원 봉사와 환경 보전 활동과 같은 태도, 성향 및 행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변인들과 가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예: Sagiv & Schwartz, 2000; Schwartz, 2009; Schwartz, Sagiv, & Boehnke, 2000; Walker, 2006; Whitley, 1999). 이를 통해 특정한 가치가 특정한 성격적 특성 및 사회적 행동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로, 보편주의와 박애 가치는 공감, 협력 행동을 포함한 친사회적 경향 및 다양한 사회적 참여와 같은 정치적 활동성(political activism)과 관련이 더 높았다(Helkama, Uutela, & Schwartz, 1992). 자기초월에 포함되는 가치들은 폭력 상황을 목격할 때 이를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각할 경향성을 높이며,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Caprara & Steca, 2007; Verplanken & Holland, 2002). 불안의 유형을 미시적 걱정(micro worries, 예: 개인적 건강과 안전, 사회적 수용, 재정 등)과 거시적 걱정(macro worries, 예: 빈곤, 내집단 갈등, 전쟁 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보편주의 가치가 거시적 걱정과 가장 높게 관련되었다. 권력 가치는 거시적 걱정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Davidov, 2008; Davidov, Schmidt, & Schwartz, 2008; Schwartz, Sagiv, & Boehnke, 2000). 또한, 국가별 다양한 표본에서 얻어진 가치 순위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가치우선성의 범문화적 기준선(pan-cultural baseline)이 제시된 바 있다. 이를 활용하여 가치 순위의 보편성이나 문화에 따른 특성 및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가치의 형성, 교육과 교정의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의 가치의 전파나 발달 그리고 시간에 따른 가치의 변화를 평가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예: Bardi, Lee, Hofmannowfigh, & Soutar, 2009; Knafo, 2003). 최근에는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bullying), 사이버 폭력과 같은 사회병리 현상, 게임중독, 스트레스 및 심리적 증상 등 다양한 문제들과 가치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예: Camodeca & Goossens, 2005; Chan, 2012, 2014; Sortheix et al., 2013). 한편, Schwartz 등은 문화권에 따른 가치의 특수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즉, Schwartz는 가치 모델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했던 일부의 차원이 몇몇 국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점(Schwartz, 1992, 1994; Schwartz & Bilsky, 1990)에 주목하며, 서구와 확연히 다른 문화권에 대한 보다 확장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가치 연구에서 문화 보편적 측면과 문화 특수적 측면이 모두 고려되는 것이 필요

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에 Schwartz는 다양한 문화권의 표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예: Schwartz & Boehnke, 2004; Schwartz et al., 2012).

최근에 Schwartz 등(2012)은 인접한 가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일부 가치 지표의 낮은 신뢰도(예: PVQ로 측정 시 전통, 동조, 권력 가치의 신뢰도 .50이하), 한 문항이 여러 요인들에 교차 부하되는 것과 같은 기존 이론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치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이론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이론에서는 기존에 하나로 묶여있던 가치가 두 가지 이상의 하위 요소(facets)로 구분되거나 독립적 가치로 분리될 수 있다는 관찰과 이론적 근거에 따라(예: Roccas, Sagiv, Schwartz, & Knafo, 2002; Schwartz, 2006, 2009), 세부 가치의 유형을 10개에서 19개로 확장하였고 가치를 조직화하는 원리를 초기 두 개에서 세 개로 확대하였다. 가치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해서 다루는 작업은 가치에 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특정 가치와 다양한 현상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특정 가치를 선택할 수 있어서 연구의 편의성도 증가된다(Schwartz et al., 2012). 세부적으로 기존의 전통 가치에서 분리된 가치를 ‘겸손’ 가치로, 권력 가치에서 분리된 가치를 ‘체면’ 가치로 명명 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자기결정’, ‘권력’, ‘안전’, ‘동조’, ‘보편주의’, ‘박애’ 가치를 각각 몇 개의 하위 가치로 세분화하였다(표 1 참조). 한편, 가치의 유형을 확대 및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보편주의 가치와 박애 가치의 원형 모델상의 위치를 수정하였다. 각각 8개 국가 및 10개국 15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정된 19개 가치

와 원형 구조가 대부분 지지되었으며, 경험적 결과를 통합하며 이론은 지속적으로 발전 중에 있다(Cieciuch, Schwartz, & Vecchione, 2013; Schwartz et al., 2012).

###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

2012년 개정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10개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것은 척도는 Schwartz의 가치조사질문지(Schwartz's Value Survey: SVS; Schwartz, 1992)였다. SVS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 10개 가치와 이론에서 상정한 원형 구조가 대부분 확인되었다(예: Schwartz, 1994; Schwartz & Sagiv, 1995). 다만, 표본의 약 5%가량은 예측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보였는데(예: 사하라 아프리카, 인디아, 말레이시아 등), 연구자들은 SVS문항에 사용되는 용어의 추상성과 관련된 문제 가능성을 지적하였다(Schwartz et al., 2001). 이어 개발된 것이 가치묘사질문지(Portrait Values Questionnaire: PVQ; Schwartz et al., 2001)이다. SVS가 가치를 측정하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사고와 판단 능력을 요구하는 한편, PVQ는 11세 연령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PVQ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하는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묘사된 사람과의 유사성 판단을 통해 응답자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PVQ에서 21문항을 추출해 만든 단축형은 유럽 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에서 주로 활용되었다(Schwartz, 2003). 7개국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에서 PVQ의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및 신뢰도가 확인되었다(예: Schwartz et al., 2001). 또한, 다차원 척도 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MD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가치의 내적 타당도와 원형 구조가 검증되었다(예: Bilsky, Janik, & Schwartz, 2011; Cieciuch & Schwartz, 2012; Schwartz et al., 2001; Vecchione, Casconi, & Barbaranelli, 2009). 2012년 가치 이론의 개정과 함께 가치묘사질문지가 개정되었다. PVQ-R은 19개 가치 각각에 대하여 3문항씩 할당된 총 5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PVQ와는 달리 문항의 의미가 이중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문항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10개국 15개의 표본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및 다차원 척도 분석을 통해 19개 가치와 원형 구조가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Schwartz et al., 2012). 한편, 그림으로 된 아동 대상의 가치 평가 도구인 PBVS-C(Picture-Based Value Survey for Children: Döring, Blauensteiner, Aryus, Drögekamp, & Bilsky, 2010)도 개발되어 사용 중에 있다.

#### 국내 연구 및 본 연구의 목적

국내의 경우는 서구에 비해 아직 가치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가치에 관한 국내 연구의 주된 주제를 네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가치관 및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것(예: 나은영, 차유리, 2010; 차재호 1994; 차재호, 장영수, 1992), 둘째, 서구의 가치 모델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가치 측정 도구의 개발을 시도한 것(예: 김철민, 1999; 조남국, 1994), 셋째,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가치가 유교적 가치라는 것을 입증하고 한국형 유교가치 척도를 개발한 것(예: 류수영,

2007; 심경섭, 2014; 심경섭, 이누미야 요시유키, 윤상연, 서신화, 장양, 한성열, 2012; 정진곤, 이관춘, 1997), 넷째,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연령층과 특수한 주제 및 집단에 적용을 시도한 것(예: 김연신, 최한나, 2009; 서지영, 정영숙, 2012; 신현희, 2011; 주영현, 2012). 현재까지 이루어진 가치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한국 사회에 고유한 문화 특수적 가치를 보다 강조하는 입장이라는 하였으나, 최근의 연구 동향을 본다면 점차 문화 특수적 가치와 문화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가치의 문화 보편적 측면과 특수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과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관심을 공유하는 주제이다. 한 사회 구성원의 가치의 내용, 구조 및 특성을 보다 폭넓고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문화 보편적 측면과 문화 특수적 측면에 관한 관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문화 보편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심리측정적으로 적합한 가치 평가 도구는 아직 없다. 최근 Schwartz의 가치 평가 도구인 SVS를 통해 가치 이론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가 있고(김연신, 최한나, 2009), 2012년 개정된 PVQ-R의 이전 판인 PVQ가 일부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나(서지영, 정영숙, 2012), 이에 관한 국내 타당도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PVQ-R에 관한 국내 타당도 연구는 가치에 관한 국내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인을 대상으로 Schwartz의 가치 이론을 적용해 보는 것은 보편적 가치에

관한 비교 문화적 이해의 확대를 돕고 이를 기초로 한국 사회에 보다 특수한 가치를 확인하고 또 이에 적합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현상들과 가치간의 관계를 밝히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 개정된 PVQ-R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개정된 가치 이론에서의 가치 유형과 위계적 요인 구조가 PVQ-R에서 확인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PVQ-R과 SVS로부터 얻은 자료에 중다특질-중다방법(multitrait-multimethod: MTMM; Campbell & Fiske, 1959)을 적용하여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탐색적으로 Schwartz등(2012)의 연구에서 얻어진 10개국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문화권에 따른 가치우선성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PVQ-R과 유교가치 척도의 결과를 비교하여 유교가치가 Schwartz의 가치 이론에서의 가치 유형과 어떤 관련성을 보일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가치의 우선성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고유하거나 특수한 가치 연구를 위한 합의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559명(남: 273명, 여: 286명)이 참여하였고 참

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세였다(남: 22.2세, 여: 20.7세).

### 측정도구

#### 개정된 가치묘사질문지(PVQ-R) 한국판

본 연구를 위하여 Schwartz 등(2012)이 개발한 PVQ-R을 역번역(back translation)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과 역번역 과정에 연구자 2인과 한국어와 영어에 능숙한 이중 언어 구사자 2인이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용어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하고자 Schwartz와의 교신을 통해 반복적인 확인 작업을 거쳤다. PVQ-R은 총 5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개 가치들을 각각 3문항으로 측정한다. 질문지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성별에 따라 인칭 대명사를 달리했기 때문에 남성용과 여성용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PVQ는 어떤 사람의 특정한 특질과의 유사성이라고 보다는 특정한 목표와 열망(가치)에 관한 유사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문항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의 관점에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주제로서의 가치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도 가치에 관한 평가가 가능하다(예: 지식을 넓히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 기존의 PVQ와는 달리 PVQ-R에서는 한 문항에서 응답이 2개가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각 문항은 한 개의 문장으로 표현되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하여 ‘이 사람은 당신과 얼마나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따라 본인과의 유사성 정도를 6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 한다: 0(나와 전혀 같지 않다), 3(나와 어느 정도 같다), 5(나와 매우 같다). 10개국 약 6천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9개 가치의 신뢰도 범위는 .63~.87이었다(Schwartz



et al., 2012).

### 가치조사질문지(SVS)

SVS는 Schwartz(1992)가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 김연신, 최한나(2009)가 번안하고 주영현(2012)이 지시문을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지시문을 다소 간소화하였고 일부 문항은 원본에 보다 충실하도록 수정하였다. SVS는 2개의 목록으로 구분된 총 5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목록은 바람직한 목표를 명사의 형태로 기술한 30개의 가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예: 성숙한 사랑, 평등). 두 번째 목록은 행위를 취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방식을 행동사의 형태로 기술한 27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예: 정직한, 지적인). 각 가치 문항은 그 문항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문구가 괄호 안에 함께 제시된다. 응답자들은 ‘나의 삶을 이끄는 원칙’으로서 각 가치 문항의 중요성을 9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1(추구하는 가치와 반대되는 경우), 0(중요하지 않은 가치일 경우), 3(중요한 가치일 경우), 6(매우 중요한 가치일 경우), 7(최고로 중요한 가치일 경우). 응답자들은 모든 문항에 답하기에 앞서 전체적으로 질문지의 내용을 먼저 읽어 본 후에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그렇지 않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평가한다. 이후 나머지 문항들을 그 중요성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는 가장 선호하는 가치와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대부분의 가치를 중간 범위에서 평가하는 경향성을 줄이고 응답자에게 가치의 중요성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조금 더 세밀히 평가하도록 도울 수 있다(Schwartz, 1994). 이백

여개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Schwartz, 2005)에서 SVS의 신뢰도 범위는 .61~.75였고, 국내 연구에서는 .51~.78이었으며(주영현, 2012), 본 연구에서는 .60~.83이었다.

### 유교가치 척도

유교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류수영(2007)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류수영은 한국인의 지배적인 가치인 유교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Q-sort 방식을 통해 40문항을 추출하였다. 교차 타당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29개의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등을 거쳐 2요인을 확인하였다. 제 1요인에 해당하는 양심, 윤리적 올바름, 책임감, 신념 및 노력하는 자세 등을 포함한 22문항은 도덕 함양과 관련된다. 이들 항목은 유교의 핵심가치인 인(仁)을 반영하는 것이며, 한국인의 특성으로 논의되는 정(情)의 특성을 잘 표현한다. 제 2요인에 해당하는 의례의 형식, 일상적 의식 참여, 어른에 대한 공경, 순응 및 명분 등으로 구성된 7문항은 유교의 주요 가치 덕목인 예(禮)의 외현적인 측면과 이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으로서 의(義)의 가치를 반영한다. 응답자들은 질문지에 제시된 단어들인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7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1(전혀 관련 없음), 7(매우 관련 있음). 본 연구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로 지시문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93이었다(류수영, 2007).

## 자료 분석

가치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분석에서 활용하는 방식은 Schwartz 등(2012)의 기준을 따랐다. PVQ-R의 코딩 지표에 기초하여 19개 가치의 점수를 산출한다. 이 점수는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를 구하는데 사용된다. 한편, 척도 사용에서의 개인차를 제거하기 위해, 응답자가 19개 가치 문항에 반응한 점수로부터 응답자가 전체 가치 문항에 반응한 점수의 평균을 빼서 각 가치에 대한 중심값(center score)을 산출한다. 이 점수가 상관분석(중다특질-중다방법 분석 포함)과 회귀분석에서 사용되었다. 다차원 척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원점수가 사용되었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먼저 가치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인 다차원 척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Schwartz, 1992; Schwartz & Boehnke, 2004; Schwartz et al., 2012). 다차원 척도 분석은 가치들이 이론에서 가정한 유사 원형 구조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 가치의 연속체가 시각적으로 서로 다른 가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유용하다. 이를 위해 가치묘사질문지 57개 문항의 Pearson 상관계수 행렬을 비유사성 행렬(dissimilarity matrix)로 변형시킨 후 통계 패키지 R(Dalgaard, 2002)의 isoMDS를 사용하여 Kruskal의 비계량적(non-metric) 다차원 척도 분석을 적용하였다. 57x57 행렬에 수록된 57개 문항간의 비유사성(dissimilarity) 또는 거리(distance) 정보는 isoMDS를 통해 2차원 공간에 점들로 그리고 그 점들 간의 거리로 변환되었다. 계량적(metric) 다차원 척도 분석에 비하여 비계량적 방법은 입력되는 비유사성 정보의 단조적 변형(monotonic transformation)을 허용한다. 다차

원 척도 분석의 결과(solution)는 회전(rotation)이나 반사(reflection)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석 또는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서 회전 또는 반사를 허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Schwartz 등의 연구(2012)에 제시된 2차원 구조 및 배열 양상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isoMDS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행렬대수(matrix algebra)를 통해서 회전시켰다. 다차원 척도 분석은 각각의 가치들을 다차원 공간상에서 점으로 표시 해주며, 각 점들은 상관으로 측정된 가치들 간의 경험적 관계성을 나타내준다. 따라서 가치들 간의 개념적 유사성과 경험적 관련성이 높을수록 다차원 공간상에서 더 가깝게 위치한다. 가치의 영역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선행 연구(Schwartz, 1992; Schwartz et al., 2012)에서 제시한 기준을 통합해서 사용하였다. 첫째, 하나의 분리된 가치형을 이루기 위해 이론에서 가정한 특정 가치 유형을 측정하는 가치 문항의 최소 60%를 포함해야 한다. 즉, PVQ-R은 3개의 문항으로 각 가치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2개 문항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이론에서 제시한 다른 유형의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은 최소 33%를 넘지 않는다. 즉, 1개를 넘지 않는다. 셋째, 두 개 문항으로 가치 영역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두 문항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할 때 다른 가치에 해당하는 문항 2개와 교차되지 않는다. 넷째, 두 개 유형의 가치가 각각 최소 50%씩 포함되면 하나의 통합된 가치 영역으로 간주된다. PVQ-R은 3문항으로 각각의 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반올림을 하여 2문항을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위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이론에서 가정한 가치의 유형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본다.

한편, 다차원 척도 분석의 경우 Schwartz (2011)가 언급하였듯이 2차원 공간상에 배열된 가치들 간의 구분을 위해서는 주관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이 활용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으로 구분된 가치들이 하나의 분리된 잠재적 변수로 다루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다른지를 측정하기 위해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Brown, 2006). 단, 확인적 요인 분석은 각 가치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하나의 연속체에 따라 가치가 배열된다는 이론의 가정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한 최근 연구에서는 가치 이론에서 가정한 모델을 각각 분리해서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Cieciuch & Davidov, 2012; Cieciuch et al., 2014; Davidov, 2008; Knoppen & Saris, 2009). 이 방식은 연속체의 성격을 띠는 모델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차 부하의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19개의 가치들이 이론에서 가정한 상위 가치가 아닌 다른 상위 가치에 묶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가치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는 다차원 척도 분석방법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동시에 활용하였다(Cieciuch & Schwartz, 2012; Knoppen & Saris, 2009). 본 연구에서도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가치 이론에서 가정한 가치의 유사 원형 모델, 가치의 배열순서, 세부 가치들의 유형, 4개의 상위 가치 모델이 경험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개정된 가치 이론에 의해 두 개의 상위 가치의 중간에 위치한 쾌락주의, 겸손, 체면에 해당하는 가치 유형은 두 가지 상위 가치에 모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확인

적 요인분석에서는 적합도 평가를 위해  $\chi^2$ 값,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고려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는 그 값이 대략 .90 이상인 경우, 그리고 RMSEA는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델로,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델로 해석하였다(홍세희, 2000).

가치 구조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중다특질-중다방법을 적용하였다. 각 가치에 대한 응답자의 점수를 특질로 보고, PVQ-R과 SVS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는 단일특질-중다방법 상관(수렴 타당도)행렬을 중다특질-중다방법 상관 및 중다특질-단일방법 상관(변별 타당도)행렬과 비교하면서 평가된다. 각 가치에 기저한 동기의 유사성이 반응의 주요 결정인이라면 단일특질-중다방법 상관이 0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있고, 측정 방법에 관계없이 다른 가치들과의 상관보다 높아야한다. 측정 방법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일특질-중다방법 상관을 중다특질-단일방법 상관과 비교하였다. 단일특질-중다방법 상관 분석 시, 개정된 PVQ-R의 경우 SVS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가치들이 몇 가지로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PVQ-R의 가치문항들(자기결정, 권력, 안전, 동조, 보편주의, 박애)은 합산해서 비교하였다. PVQ-R에서 새로이 추가된 체면과 겸손 가치는 이론에서의 가정에 의해 몇 가지 예측이 가능하지만, 직접 비교할 만한 준거가 SVS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고 논의에서 기술하였다.

끝으로 유교적 가치와 PVQ-R의 19개 가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 그리고 유교적 가치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19개 가치 점수를 예언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이 사용되었다.

## 결 과

### 신뢰도 분석

PVQ-R의 19개 가치척도 점수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59에서 .89의 범위에 해당하였다.

###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

가치 이론에서 가정한 가치의 원형구조, 배열양상, 4개 상위 가치 구분, 세부가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가 그림 2, 3, 4에 제시되어있다.

그림 2는 19개 가치점수를 투입하여 다차원 척도 분석을 한 결과 얻어진 구조적 배열이다. 그림 2에서 보여주듯이 19개 가치들은 유사 원형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가치의 배열 양상을 이론적 모델과 비교하기 위한 Spearman 상관( $\rho$ )은 .996( $p < .001$ )으로, 가치 이론에서 가정한 가치들의 배열 양상과 본 연구에서 관찰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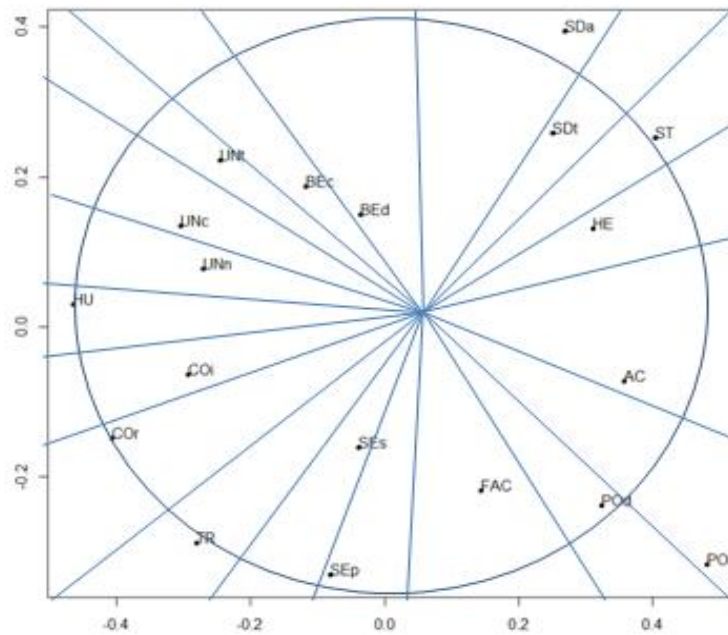


그림 2. 19개 가치 유형의 구조적 배열

주. 1) SDa=자기결정-행위, SDt=자기결정-사고, ST=자극추구, HE=쾌락주의, AC=성취, POt=권력-지배, POd=권력-자원, FAC=체면, SEp=안전-개인적, SEs=안전-사회적, TR=전통, COr=동조-규칙, COi=동조-대인적, HU=겸손, UNn=보편주의-자연, UNc=보편주의-관심, UNt=보편주의-관용, BEc=박애-돌봄, BEd=박애-신뢰성. 2) 원과 방사형 직선은 이론에서 가정한 가치의 배열과 순서에 대한 시각적 비교를 위해 연구자가 표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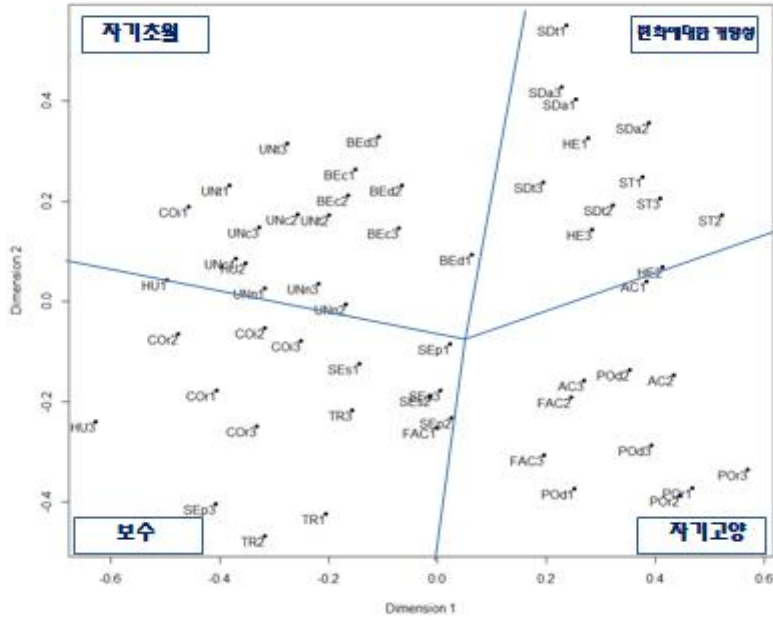


그림 3. 4개 상위 가치영역으로 분할한 세부 가치유형과 문항의 배열  
 주. 4개 상위 가치를 구분하는 선은 가치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표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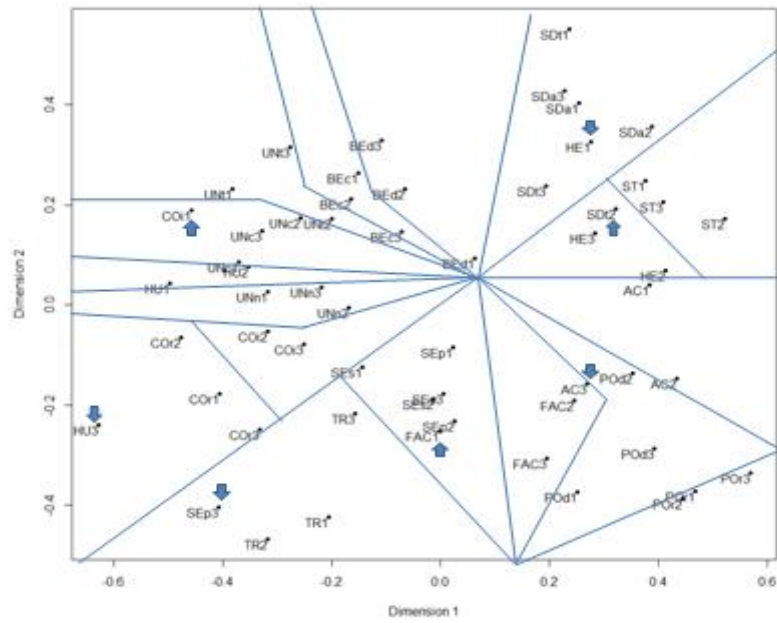


그림 4. 17개 영역으로 구분된 가치 유형과 문항  
 주. 화살표가 표기된 7개(HE1, SD2, AC3, FAC1, SEp3, HU3, CO1)는 가치 이론에서 제시한 영역과 다른 영역에 위치한 문항들.

가치들 간의 배열은 높은 수준에서 일치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자기결정 가치(자기결정-행위, 자기결정-사고), 권력 가치(권력-지배, 권력-자원)의 내부 배열이 바뀌었다.

그림 3과 그림 4는 57개 문항을 투입하여 다차원 척도 분석을 한 결과 얻어진 구조적 배열이다. 그림 3에서는 19개 가치들과 이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MDS 결과에 따라 4개의 상위 가치(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기고양, 보수, 자기초월)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개정된 가치 이론에 따라 두 개 상위 가치들 사이에 걸쳐있는 것으로 가정된 세 개 가치들 중 체면(자기고양과 보수), 겸손(보수와 자기초월)가치는 두 개 상위 가치에 나눠서 문항이 분포되었다. 쾌락주의 가치(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고양)에 속하는 문항 1개(HE2: 삶의 쾌감을 누리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는 두 개 상위 가치를 구분하는 경계 상에 위치하여 이론적 가정을 뒷받침하였다.

그림 4에서는 4개의 상위 가치로 구분된 57개 문항들의 배열이 19개의 세부 가치 영역으로 구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자료 분석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영역을 나누어 본 결과, 그림 4와 같이 총 17개의 독립된 가치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하여 상위 수준에서 묶인 가치들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 하위 유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는 개정된 가치 이론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자기결정 가치에 해당하는 가치 두 개가 통합되어 나타났고, 안전 가치에 해당하는 가치 두 개가 통합된 영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57개 문항 중 7개는 이론에서의 가정과 다른 인접

표 2. 이론에서의 예측과 다른 가치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관찰된 문항 7개

문항	내용	이론상 가치영역 [상위 가치]	관찰된 가치영역 [상위 가치]
HE1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	쾌락주의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고양]	자기결정 [변화에 대한 개방성]
SDc2	자신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	자기결정-사고 [변화에 대한 개방성]	쾌락주의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고양]
AC3	그가 성취한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	성취 [자기고양]	체면 [자기고양과 보수]
FAC1	누구도 그를 결코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	체면 [자기고양과 보수]	안전 [보수]
SEp3	위험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	안전-대인적 [보수]	전통 [보수]
HU3	대중적 관심이나 찬사를 결코 추구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	겸손 [보수와 자기초월]	동조-규칙 [보수]
COi1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	동조-대인적 [보수]	보편주의-관심 [자기초월]

가치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중 4개 문항(HE1, SDt2, AC3, SEp3)은 각각의 가치 영역을 벗어났지만, 이론적 가정과 일치하는 4개 상위 가치 차원에 속해 있었다. 체면 가치와 겸손 가치에 해당하는 2개 문항(FAC1, HU3)은 2개의 상위 가치 차원의 중간에 위치한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2개 상위 가치 차원에 나뉘서 문항이 분포된 것은 이론과는 부합되는 결과였다. 동조-대인적 가치를 측정하는 1개 문항(CO1)만이 이론에서 가정된 보수 상위 가치 차원이 아닌 자기초월 상위 가치 차원에 포함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상위 가치 모델에 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가 그림 5, 6, 7, 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5를 보면, SDt와 SDa가 SD요인으로 묶이고, SD요인은 ST 및 HE와 함께 변화에 대한 개방성 상위요인으로 묶이는 4-3-1 위계모형이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위계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수준이었다, CFI=.928, TLI=.903, RMSEA=.084. 그림 6을 보면, POd와 POr이 PO요인으로 묶이고, PO요인은 HE, AC 및 FAC와 함께 자기고양 상위요인으로 묶이는 5-4-1 위계모형이며, 이 위계모형은 2개의 잔차간 상관(AC2의 잔차-POR2의 잔차간 상관, AC3의 잔차-FAC의 잔차간 상관)을 연결하여 적절한 적합도 수준에 이르렀다, CFI=.932, TLI=.914, RMSEA=.070. 그림 7을 보면, SEp와 SEs가 SE요인으로 묶이고, COr과 COi가 CO요인으로 묶이며, SE요인과 CO요인은 TR, HU 및 FAC와 함께 보수 상위요인으로 묶이는 7-5-1 위계모형이며, 이 위계모형은 1개의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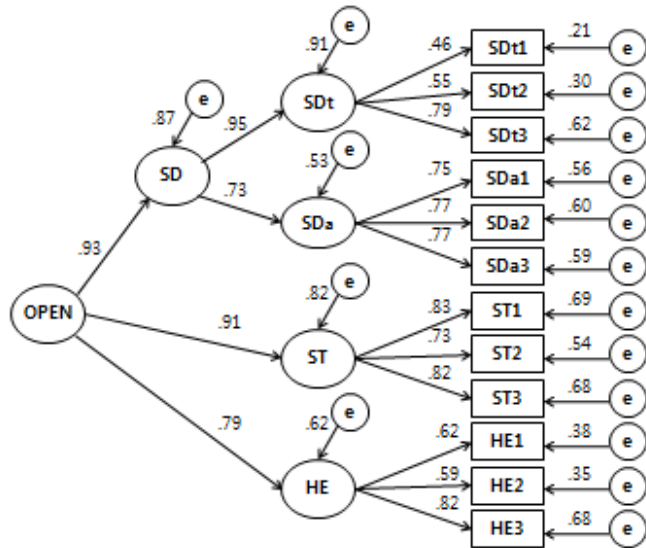


그림 5. 변화에 대한 개방성 가치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수치들은 표준화 계수임)  
 주. OPEN: 변화에 대한 개방성 상위 가치, SD=자기결정 가치(SDa=자기결정-행위 가치, SDt=자기결정-사고 가치), ST=자극추구 가치, HE=쾌락주의 가치. 3)각 가치의 약자 옆에 기입된 숫자는 해당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번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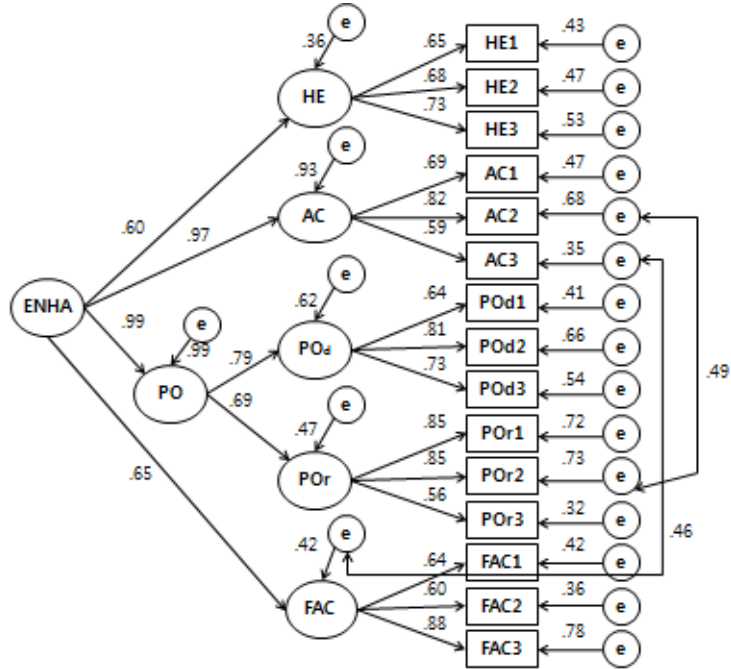


그림 6. 자기고양 가치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수치들은 표준화 계수임)  
 주. ENHA: 자기고양 상위 가치, AC=성취 가치, PO=권력 가치(POd=권력-지배 가치, POOr=권력-자원 가치), FAC=체면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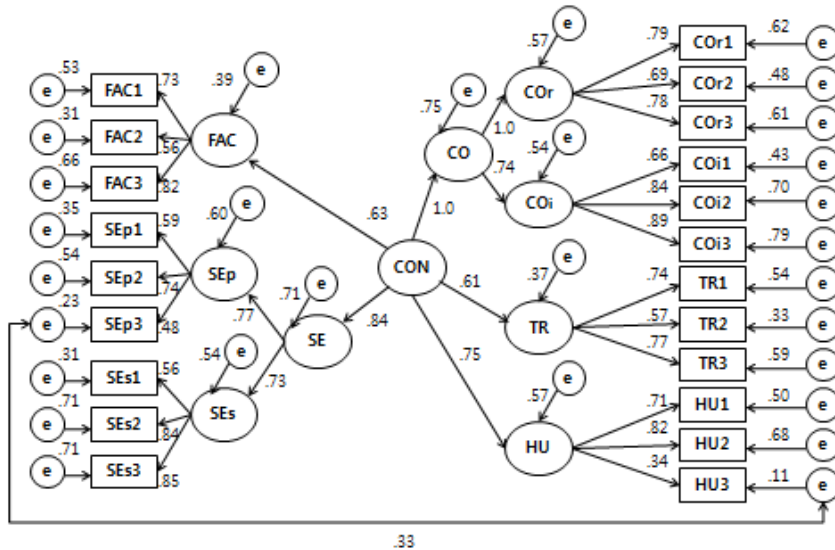


그림 7. 보수 가치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수치들은 표준화 계수임)  
 주. CON: 보수 상위 가치, SE=안전 가치(SEp=안전-개인적 가치, SEs=안전-사회적 가치), CO=동조 가치(COr=동조-규칙 가치, COi=동조-대인적 가치), TR=전통 가치, HU=겸손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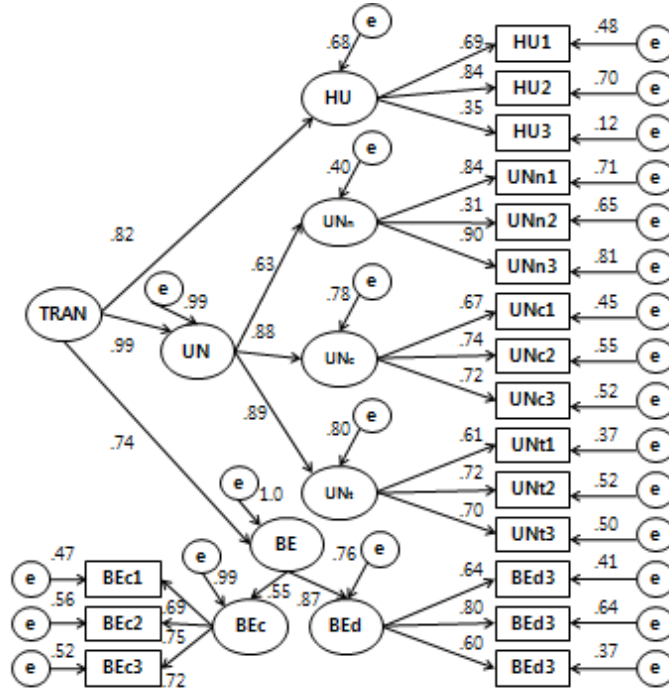


그림 8. 자기초월 가치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수치들은 표준화 계수임)  
 주. TRAN: 자기초월 상위 가치, UN=보편주의 가치(UNn=보편주의-자연 가치, UNc=보편주의-관심 가치, UNt=보편주의-관용 가치), BE=박애 가치(BEc=박애-돌봄 가치, BEd=박애-신뢰성 가치).

표 3. PVQ-R의 4개 상위 가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chi^2$	df	RMSEA	CFI	TLI
변화에 대한 개방성(OPEN)	241.7	49	.084	.928	.903
자기고양(ENHA)	313.0	83	.070	.932	.914
보수(CON)	613.1	179	.066	.902	.885
자기초월(TRAN)	409.1	129	.062	.934	.921

차간 상관(SEp3의 잔차-HU3의 잔차간 상관)을 연결하여 적절한 적합도 수준에 이르렀다, CFI=.902, TLI=.885, RMSEA=.066. 그림 8을 보면, UNn, UNc, UNt가 UN요인으로 묶이고, BEc와 BEd는 BE요인으로 묶이며, UN과 BE요

인은 HU와 함께 자기초월 상위요인으로 묶이는 6-3-1 위계모형이다. 이 위계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수준이었다, CFI=.934, TLI=.921, RMSEA=.062. 쾌락주의 가치와 개정된 모델에서 추가된 겸손과 체면 가치는 이론적 모델에

따라 두개 상위 가치 모두에 포함시켜 분석하였고, 양쪽 모두에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여주면서 두 개 상위 가치의 중간에 위치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을 지지하였다.

중다특질 중다방법 분석을 통한 가치 소척도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각 가치 소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중다특질-중다방법 분석 결과 및 각 소척도의 신뢰도 계수가 표 4, 5,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일특질-중다방법 상관(표 4의 굵은 글씨체로 제시된 수치)에 기초한 수렴타당도 계수의 범위는 .71~ .36( $p < .0001$ )이며, 비교 검토된 상관계수의 99%(178/180)가 중다특질-중다방법 상관행렬의 수치보다 높았다. 두 경우의 예외가 관찰되었는데 중다특질-중다방법

표 4. PVQ-R과 SVS의 중다특질-중다방법 상관관계 행렬 및 SVS 각 가치 척도의 신뢰도 계수

	SVS									
	SD	ST	HE	AC	PO	SE	TR	CO	UN	BE
<b>PVQ-R</b>										
SDt/SDa	.61**	.27**	.14**	.22**	-.18**	<b>-.36**</b>	-.24**	-.29**	-.02	-.15**
ST	.40**	<b>.71**</b>	.27**	.15**	-.03	-.34**	-.27**	-.32**	-.19**	-.30**
HE	.32**	.32**	<b>.57**</b>	.11**	.02	-.14**	-.35**	-.31**	-.16**	-.26**
AC	.10*	.21**	.15**	<b>.55**</b>	.51**	-.12**	-.38**	-.19**	-.40**	-.37**
POr/POd	-.06	.16**	.17**	.38**	<b>.70**</b>	-.02	-.25**	-.22**	-.41**	<b>-.45**</b>
SEp/SEs	-.21**	-.33**	-.14**	-.12**	.06	<b>.36**</b>	.13**	.12**	.09*	.02
TR	-.27**	-.13**	-.19**	.20**	-.10*	.06	<b>.48**</b>	.20**	.04	.11**
COr/COi	-.31**	-.35**	-.25**	-.28**	-.17*	.25**	.31**	<b>.37**</b>	.13**	.30**
UNn/Unc/Unt	-.12**	-.15**	-.21**	-.45**	-.55**	-.02	.23**	.14**	<b>.61**</b>	.38**
BEc/BEd	-.13**	-.18**	-.05	-.05	-.13**	.13**	-.04	.10*	-.03	<b>.40**</b>
FAC	-.11**	-.13**	-.00	.19**	.42**	.11**	-.11*	.01	-.22**	-.17**
HU	-.14**	-.26**	-.27**	-.31**	-.37**	.08	.40**	.39**	.26**	.25**
Mean	4.77	3.95	4.88	4.60	3.56	4.50	3.23	4.02	4.13	4.30
SD	1.02	1.54	1.16	1.14	1.38	0.99	1.14	1.15	1.07	1.07
신뢰도( $\alpha$ )	.74	.83	.60	.77	.77	.70	.60	.70	.83	.75

주. 1) 중다특질-중다방법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권고에 따라(Schwartz, 1992, 1994, 2001)의미상 비교 문화적 동질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 SVS의 46개 문항만을 사용하였음. 2) 대각선 방향의 진한 글씨체로 표기된 것이 단일특질-중다방법 상관 수치로 수렴타당도 계수가 됨. 3) 대각선 방향에 있는 수치의 위와 아래의 상관행렬은 중다특질-중다방법 상관 수치들로 변별타당도 계수가 됨. 4) 대각선의 위쪽에 진한 글씨체로 표기된 행은 단일특질-중다방법 상관 지표 보다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들로 수렴 및 변별타당도의 유의도를 감소시키는 부분에 해당함. 5) 표의 하단에 색으로 표기된 행은 PVQ-R에서 추가된 가치(FAC, HU)에 해당하며 상관관계 비교에서는 제외하였음.

표 5. PVQ-R의 중다특질-단일 방법 상관관계 행렬 및 PVQ-R 각 가치 척도의 신뢰도 계수

	SDt	SDa	ST	HE	AC	POd	POr	SEp	SEs	TR	COr	COi	UNn	UNc	UNt	BEc	BEd	FAC	HU
SDt																			
SDa	.36																		
ST	.35	.31																	
HE	.12	.27	.31																
AC	.10	.08	.19	.19															
POd	-.01	-.13	.11	-.03	.37														
POr	-.05	-.12	.06	.12	.41	.30													
SEp	-.26	-.19	-.43	-.12	-.12	-.11	.07												
SEs	-.07	-.16	-.22	-.15	-.13	.04	-.10	.10											
TR	-.08	-.31	-.14	-.29	-.25	.02	-.09	-.01	.13										
COr	-.29	-.18	-.40	-.35	-.33	-.19	-.26	.09	.09	.17									
COi	-.28	-.27	-.29	-.19	-.23	-.30	-.19	.09	-.12	-.10	.17								
UNn	-.09	-.14	-.08	-.15	-.31	-.24	-.23	-.01	.07	.14	.13	-.08							
UNc	-.18	-.10	-.18	-.14	-.39	-.36	-.41	.02	.03	-.03	.12	.15	.25						
UNt	-.10	-.07	-.15	-.11	-.34	-.37	-.38	-.06	-.17	.00	.05	.25	.06	.28					
BEc	-.19	-.10	-.14	-.03	-.19	-.22	-.25	.00	-.16	-.13	-.03	.07	.01	.14	.24				
BEd	-.20	-.02	-.15	.03	-.05	-.06	-.16	-.04	-.18	-.15	-.03	.08	-.19	-.02	.11	.40			
FAC	-.16	-.12	-.18	-.08	.28	.21	.18	.06	-.04	-.15	-.03	.16	-.29	-.23	-.22	-.14	-.06		
HU	-.14	-.11	-.31	-.35	-.46	-.33	.36	.11	-.03	.16	.29	.26	.13	.36	.29	.02	-.09	-.22	
Mean	4.25	4.63	3.85	4.66	4.18	3.59	3.44	4.19	3.86	2.94	3.65	4.20	3.56	4.18	4.20	4.42	4.39	4.20	3.68
SD	0.71	0.77	0.96	0.66	0.75	0.97	0.85	0.67	0.72	0.81	0.80	0.79	0.85	0.69	0.69	0.67	0.70	0.73	0.80
신뢰도 (a)	.66	.81	.84	.73	.73	.77	.79	.59	.78	.73	.80	.84	.89	.74	.71	.76	.75	.73	.64

주. 진한 글씨체로 표기된 행이 단일특질-중다방법 상관 지표보다 높은 상관을 보이는 중다특질-단일방법상관에 해당함. 2)색으로 표기된 행과 열은 PVQ-R에서 추가된 가치(FAC, HU)에 해당하며 상관관계 비교에서는 제외하였음.

상관 행렬 중에서 박애 가치는 권력 가치와 부적 상관(-.45)을 보이며 변별타당도 계수가 더 높았고, 안전 가치는 자기결정 가치와 동일한 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36). 한편, 측정 효과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일특질-중다방법 상관을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중다특질-단일방법 상관 결과와 비교하였다. PVQ-R의 경우 비교 검토된 상관계수의 99%(253/256), SVS의 경우 비교 검토된 상관계

수의 95%(77/81)가 변별타당도 계수가 수렴타당도 계수에 비해 작아야 한다는 준거에 부합하였다.

가치 순위 비교

본 연구의 자료와 Schwartz 등(2012)의 10개국(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이태리,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 미국)자료에

표 6. SVS의 중다특질-단일 방법 상관관계 행렬

	SD	ST	HE	AC	PO	SE	TR	CO	UN	BE
SD		.40	.28	.09	-.17	-.34	-.33	-.35	-.11	-.30
ST			.30	.15	.00	<b>-.37</b>	-.28	-.30	-.18	-.33
HE				.12	.11	-.20	-.37	<b>-.41</b>	-.28	-.32
AC					.40	-.22	-.36	-.23	-.52	-.21
PO						-.01	-.30	-.17	<b>-.48</b>	<b>-.37</b>
SE							.01	.22	.06	.10
TR								.30	.14	.25
CO									-.00	.27
UN										.20
BE										

주. 진한 글씨체로 표기된 행이 단일특질-중다방법 상관 지표보다 높은 상관을 보이는 중다특질-단일방법 상관에 해당함.

서 얻은 가치 순위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을 보면, 각각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반영하는 가치의 평균치는 10개국 자료가 성취, 권력-자원, 권력-지배 가치를 제외한 16개 가치에서 본 연구의 자료보다 모두 높았다. 두 집단의 가치우선성의 차이를 상위30%(1위~6위), 중간40%(7위~13위), 하위30%(14~19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상위범주 내에서 6위인 보편주의 가치의 세부유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국내: 보편주의-관용, 10개국: 보편주의-관심), 상중하 각 범주에 포함되는 가치의 유형은 일치하였다. 가치우선성 순위 배열의 상관(Spearman 상관:  $\rho$ )은 .90( $p < .001$ )으로 두 자료간 가치 순위의 배열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한편, 10개국 자료는 상중하 범주에 따른 가치우선성의 평균 차이가 보다 뚜렷했고, 국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었으며 특히, 6위부터 11위에 해당하는 가치

들은 차이가 거의 없거나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의 경우 자기고양가치에 속하는 쾌락주의와 자기결정-행위 가치가, 10개국 자료의 경우 자기초월 가치인 박애-돌봄과 박애-신뢰성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었다. 국내의 경우 체면(7위)과 성취(10위)가치가 10개국 자료(각각 12, 13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순위가 매겨진 한편, 전통 가치는 최하위로 권력-자원 가치가 최하위로 평가된 10개국 자료에 비해 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국내 대학생의 남녀별 가치우선성의 순위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Spearman 상관( $\rho$ )은 .87( $p < .001$ )로 성별에 따른 가치 순위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다. 보편주의-관용 가치와 자기결정-사고 가치의 순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기결정-사고 가치의 경우 남자는 3위, 여자는 11위였고, 보편주의-관용 가치의 경우 여자는 5위, 남자

표 7. 평균치에 기초한 가치 순위의 비교

본 연구에서의 대학생 자료 N=559		Schwartz 등(2012)의 10개국 자료 N=3,261		
가치	M(SD)	가치	M(SD)	
1	쾌락주의	4.6619(0.66)	박애-돌봄	5.41(0.60)
2	자기결정-행위	4.6333(0.77)	박애-신뢰성	5.10(0.72)
3	박애-돌봄	4.4222(0.67)	쾌락주의	5.08(0.80)
4	박애-신뢰성	4.3906(0.70)	자기결정-행위	4.96(0.71)
5	자기결정-사고	4.2504(0.71)	자기결정-사고	4.77(0.71)
6	보편주의-관용	4.2057(0.69)	보편주의-관심	4.72(0.83)
7	체면	4.2039(0.73)	안전-개인적	4.64(0.83)
8	동조-대인적	4.2010(0.79)	보편주의-관용	4.61(0.83)
9	안전-개인적	4.1986(0.67)	안전-사회적	4.32(0.81)
10	성취	4.1896(0.75)	동조-대인적	4.30(0.85)
11	보편주의-관심	4.1890(0.69)	자극추구	4.29(0.90)
12	안전-사회적	3.8634(0.72)	체면	4.24(0.90)
13	자극추구	3.8563(0.96)	성취	4.08(0.91)
14	겸손	3.6852(0.74)	겸손	4.07(0.95)
15	동조-규칙	3.6565(0.80)	보편주의-자연	4.02(1.03)
16	권력-자원	3.5903(0.97)	동조-규칙	3.75(1.08)
17	보편주의-자연	3.5659(0.85)	전통	3.67(1.12)
18	권력-지배	3.4496(0.85)	권력-지배	3.12(1.09)
19	전통	2.9422(0.81)	권력-자원	3.05(1.22)

주. 본 연구로부터 얻은 자료의 경우 가치유형간 평균 차이가 중간 순위대(6위~13위)에서 미미한 경우가 많아 이의 구분을 위해 소수점 이하 4자리 수까지 제시하였음.

는 11위에 해당하였다. 가치 중요성 평가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t* 검증한 결과, 자기결정-사고와 안전-사회적 가치 점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t(558)=5.15, p<.001, t(558)=5.30, p<.001$ , 박애-돌봄, 보편주의-관용, 보편주의-자연, 박애-신뢰성 가치 점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t(558)=-3.36,$

$p<.01, t(558)=-2.86, p<.01, t(558)=-2.04, p<.05, t(558)=-2.01, p<.01.$

유교가치와의 관계

PVQ-R로 측정 한 19개 가치와 유교가치 척도의 ‘인’과 ‘예·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

표 8. 남녀 가치 순위 비교

		남(N=273)		여(N=286)	
	가치	M(SD)	가치	M(SD)	
1	자기결정-행위	4.6515(0.76)	쾌락주의	4.6229(0.66)	
2	쾌락주의	4.6295(0.66)	자기결정-행위	4.6171(0.79)	
3	자기결정-사고*	4.4073(0.74)	박애-돌봄	4.5146(0.65)	
4	박애-신뢰성*	4.3292(0.67)	박애-신뢰성	4.4505(0.72)	
5	박애-돌봄*	4.3255(0.67)	보편주의-관용	4.2873(0.70)	
6	체면	4.2156(0.75)	안전-개인적	4.2395(0.68)	
7	동조-대인적	4.2071(0.76)	보편주의-관심	4.2174(0.64)	
8	성취	4.1945(0.75)	동조-대인적	4.1952(0.82)	
9	보편주의-관심	4.1594(0.74)	체면	4.1925(0.71)	
10	안전-개인적	4.1558(0.66)	성취	4.1847(0.75)	
11	보편주의-관용*	4.1204(0.67)	자기결정-사고	4.1008(0.66)	
12	안전-사회적*	4.0264(0.73)	자극추구	3.8351(0.89)	
13	자극추구	3.8786(1.03)	안전-사회적	3.7080(0.68)	
14	겸손	3.7126(0.75)	동조-규칙	3.6847(0.77)	
15	동조-규칙	3.6271(0.84)	겸손	3.6591(0.72)	
16	권력-자원	3.6027(1.02)	보편주의-자연	3.6369(0.81)	
17	보편주의-자연*	3.4916(0.88)	권력-자원	3.5787(0.92)	
18	권력-지배	3.4806(0.85)	권력-지배	3.4202(0.85)	
19	전통	2.9421(0.84)	전통	2.9423(0.77)	

\* t 검증 결과,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가치

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결과가 표 9, 10,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교가치 ‘인’과 ‘예·의’는 PVQ-R로 측정된 각각 12개, 8

개 가치 유형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유교 가치 ‘인’과 PVQ-R의 보편주의-관용 가치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21), 권력-자원 가치와는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30).

표 9. PVQ-R의 19개 가치와 유교가치 ‘인’과 ‘예·의’의 상관계수

	SDt	SDa	ST	HE	AC	POd	POr	FAC	SEp	SEs	TR	COr	COi	HU	UNn	UNc	UNe	BEc	BEd
인	-.07	-.14**	-.06	-.19**	-.11*	-.14**	-.30**	-.05	-.08	.07	.00	.12**	.17**	.12**	.17**	.14**	.21**	.16**	.08
예·의	-.15**	-.33**	-.08	-.24**	-.07	.11**	-.08	-.02	-.02	.20**	.38**	.14**	.02	.05	.18**	.01	-.05	-.07	-.05

\*  $p < .05$ , \*\*  $p < .01$

표 10. 유교가치 ‘인’에 영향을 미치는 PVQ-R의 가치요인

예언변인		<i>t</i>	<i>R</i> <sup>2</sup>	$\Delta R^2$	$\Delta F$
UNt	.53	14.89***	.285		221.68***
COr	.29	8.05***	.359	.075	64.83***
BEc	.24	5.97***	.398	.039	35.64***
UNn	.16	4.10***	.416	.018	16.79***
COi	.14	3.48**	.428	.013	12.14**
SDt	.12	3.37**	.440	.012	11.24**
HU	.10	2.39*	.446	.006	5.69*

\*  $p < .05$ , \*\*  $p < .01$ , \*\*\*  $p < .001$

표 11. 유교가치 ‘예·의’에 영향을 미치는 PVQ-R의 가치요인

예언변인		<i>t</i>	<i>R</i> <sup>2</sup>	$\Delta R^2$	$\Delta F$
TR	.55	15.44***	.300		238.51***
SEs	.16	4.08***	.320	.020	16.63***
SDa	-.10	-2.89**	.330	.010	8.34**
POd	.12	3.03**	.341	.011	9.15**
UNn	.12	3.09**	.352	.011	9.52**
COr	.10	2.48*	.359	.007	6.12*

\*  $p < .05$ , \*\*  $p < .01$ , \*\*\*  $p < .001$

유교가치 ‘예·의’와 PVQ-R의 전통 가치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38), 자기결정-행위 가치와는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33). 표 10, 11에 제시되어 있는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PVQ-R의 보편주의-관용, 동조-규칙, 박애-관심, 보편주의-자연, 동조-대인 및 자기결정-사고, 겸손 가치가 유교가치 ‘인’의 약 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446$ ). 유교가치 ‘예·의’에 대해서는 PVQ-R의 전통, 안전-사회적, 자기결정-행위, 권력-지배, 보편주의-자연, 동조-규칙 가치가 총변량의 36%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359$ ).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Schwartz 등(2012)의 개정된 가치 이론에 따라 19개의 가치를 측정하는 개정된 가치묘사질문지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보편적 가치와 문화 특수적 가치에 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편적 가치에 관한 중요

성 평가에서 국가 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보편적 가치와 문화 특수적 가치를 반영하는 유교가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논의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묘사질문지 19개 가치척도 점수의 신뢰도 계수는 .59에서 .89의 범위에 해당하였다. 안전-개인적 가치 척도(.59), 겸손 가치 척도(.64), 그리고 자기결정-사고 가치 척도(.66)를 제외한 16개의 가치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0 이상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Schwartz 등 (2012)의 연구에서는 .63에서 .87의 범위에 해당하였고, 4개의 가치 척도(자기결정-사고, 체면, 겸손, 박애-신뢰성)가 .70 이하였다. 겸손 가치와 자기결정-사고 가치 척도가 두 연구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둘째, 19개의 가치 점수로 다차원척도 분석을 한 결과, 개정된 가치 이론에 따른 가치의 유사 원형구조가 가치묘사질문지 한국판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10개국 자료(Schwartz et al., 2012)에서 얻은 결과와 높은 수준의 일치도를 보여 개정된 이론과 경험적 연구로부터 도출된 19개 가치의 원형 구조와 가치의 배열 양상이 국내 대학생 자료를 통해서도 지지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결정 가치(자기결정-행위, 자기결정-사고)와 권력 가치(권력-자원, 권력-지배)의 내부 배열이 서로 바뀌었는데, 이는 우선 문항 수준에서 자기결정 가치의 경우 SDt2 문항(자신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 권력 가치의 경우 POD1 문항(그가 하라고 한 것을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과 관련이 있었다. SDt2는 인접 가치인 쾌락주의 가치와 자극 가치에 보다 근접하였

고, POD1은 인접 가치인 체면 가치 방향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개정된 가치이론에 따르면, 자기결정-사고 가치에서의 사고의 자율성은 보편주의-관용 가치와 관련된 지적 개방성을 강조하는 한편, 자기결정-행동 가치에서의 행동의 자율성은 자극 가치에 기저하고 있는 흥미로운 활동에 대한 동기와 보다 관련된다 (Schwartz et al. 2012). 본 연구 결과 57개 문항이 투입된 다차원척도 분석에서는 자기결정에 해당하는 두 개 세부 가치 유형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이는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가치의 유형화에 대한 세 번째 논의 단락에서 다시 기술하였다. 한편, 권력 가치의 경우 가치 이론에 관한 이전의 경험적 증거들이 권력-지배 가치와 권력-자원 가치에 관한 특정한 배열 순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가치 이론에서는 대인적 관계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다는 가정 하에 권력-지배 가치를 성취 가치에 보다 가까이 위치시켰다. 10개국 자료로부터 얻은 결과는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였으며(Schwartz et al., 2012), 본 연구에서도 POD1을 제외한 두 개 문항은 성취 가치 방향으로 근접하여 이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권력 가치의 세부 배열에 관해서는 이론적 근거를 보다 정교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인접 가치를 고려한 가치 배열의 구조적 차이가 갖는 사회 문화적 의미에 대한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해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 외에, 겸손 가치의 경우에 57개 문항이 투입된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와 19개 가치 점수가 투입된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겸손 가치를 측정하는 두 문항은 보편주의-자연 가



치와 보편주의-관심 가치 사이에 위치하였고 (그림 4), 나머지 한 문항(HU3: 대중적 관심이나 찬사를 결코 추구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은 동조-규칙 가치 영역에 포함되었다. 자기초월 상위 가치와 보수 상위 가치에 걸쳐 겸손 가치가 위치한다는 것은 가치 이론의 이론적 가정과 부합하지만, 세부 가치 수준에서는 동조-대인적 가치와 보편주의-자연 가치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 Schwartz 등(2012)의 연구에서도 겸손 가치는 동조-대인적 가치와 분리되지 않고 혼합된 양상을 보였으며, 본 연구와 Schwartz 등(2012)의 연구 모두에서 겸손 가치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겸손 가치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세부 가치 수준에서도 가치의 배열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한편, 그림 3의 구조적 배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세부 가치들은 4개 상위 가치(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기고양, 보수, 자기초월)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체면, 겸손, 쾌락주의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2개 상위 가치에 나뉘어서 문항이 분포되거나 상위 가치를 구분하는 경계 상에 위치함으로써 해당 가치들이 두 개 상위 가치의 동기적 특성을 모두 지닐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을 뒷받침하였다. 57개 문항에서 각각의 가치 영역을 이탈한 7개 문항(표 2 참조)중 6개는 이론에서 가정된 상위 가치 범주에 속해 있었으며, 유일하게 동조-대인적 가치에 해당하는 한 문항(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하다)이 보편주의 가치에 인접하면서 이론에서 가정된 보수 상위 가치 차원이 아닌 자기초월 상위 가치에 포함되었다. 이는 해당 문항이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피하고

자 하는 동기 보다는 타인의 욕구에 대한 관심이라는 자기초월적 동기를 더 잘 반영해 주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Schwartz 등(2012)의 연구에서도 모델의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기 문항들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척도의 신뢰도나 타당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후속적인 예측, 내용, 구성 타당도 검증을 통해 이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각 문항 점수로 다차원척도 분석을 한 결과, 개정된 이론에서 가정한 19개의 가치가 17개의 독립된 가치로 구분이 가능하였다(그림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전체 표본의 80%에서 17개 이상으로 구분된 Schwartz 등(201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PVQ-R에서 측정되는 가치들을 양적으로 유형화하는데 있어서는 국내 대학생들의 결과와 외국의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PVQ-R에서 세분화된 자기결정 가치(자기결정-사고, 자기결정-행위)와 안전 가치(안전-개인적, 안전-사회적)들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통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성향의 관점(Hofstede, 1991; Triandis, 1990, 2007)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 자기결정 가치에서 반영되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개인주의적 성향과 보다 관련되며, 안전 가치에서 반영되는 상호 의존과 조화는 집단주의적 성향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집합주의와 종합적 사고는 집단주의적 성향의 특성이다(Hofstede & Bond, 1988). 자기결정 가치와 안전 가치의 하위 유형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은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 사회

의 문화적 특성 및 그와 관련된 사고양식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 개인적 안전과 사회적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분리되지 않고 결합된 이유에 관해서는, 일제에 의한 타율적 근대화, 6.25 전쟁과 남북 분단, 민주화를 위한 항쟁, 경제적 위기, 사회, 정치적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을 상기시켜준다. 이에 관한 검증은 향후 연구의 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가치 이론에서 가정한 4개 상위 가치 모델의 위계적 요인 구조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변화에 대한 개방성 상위 가치와 자기초월 상위 가치는 최초 분석에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자기고양 상위 가치와 보수 상위 가치는 각각 두 쌍과 한 쌍의 잔차간 상관을 통해 적절한 적합도 수준에 도달하여, 결과적으로 4개 상위 가치 모델은 지지되었다. 자기고양 상위 가치에서 잔차간 연결이 이루어진 것 중 하나는 성취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 AC2(크게 성공하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와 권력-자원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 POR2(부유해 지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였고, 다른 하나는 성취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 AC3(그가 성취한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와 체면 가치였다. 이론적으로 이 가치들은 서로 인접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성공, 경제적 능력, 체면은 서로 긴밀히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수 상위 가치에서 잔차간 연결이 이루어진 것은 안전-개인적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 SEP3(위험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와 겸손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 HU3(대중적 관심이나 찬사를

결코 추구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이었다. 가치 이론에 따르면 겸손 가치는 자기초월 상위 가치와 보수 상위 가치 사이에 위치하며 자기 보호와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둘 모두와 관련된다(Schwartz et al., 2012). 또한, 다차원 분석 결과 HU3은 보수 상위 가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문항의 잔차의 상관은 이론적, 경험적으로 적절했으며 결과적으로 모델의 적합성을 향상시켜주었다.

다섯째, PVQ-R과 SVS 자료에 대한 중다특질-중다방법 분석 결과는 가치 척도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전반적으로 지지하였다. 즉, PVQ-R과 SVS에서 측정된 동일한 가치들 간의 상관이 높았으며, 다른 가치들과의 상관보다 대부분 더 높았다. 한편, 박애 가치와 안전 가치는 원형 모델에서 대각선 방향에 위치해 있는 권력 가치 및 자기결정 가치와 각각 더 높거나 동일한 크기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적 상관이 보다 높은 경우는 갈등적 관계에 있는 대립적 가치에 의해 해당 가치가 더 잘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중다특질-단일 방법 분석 결과에서도 일부 관찰되었다. 즉, PVQ-R로 측정했을 때, 안전-개인적 가치, 동조-규칙 가치는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자극추구 가치와 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SVS로 측정했을 때, 안전, 동조 가치는 각각 자극추구, 쾌락주의 가치와 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정된 이론에 근거한 PVQ-R과 개정 이전의 SVS를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한편, PVQ-R에서 새로이 추가된 체면 가치는 SVS의 권력 가치(.42)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보편주의 가치(-.22)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겸

손 가치는 SVS의 전통가치(.40)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권력가치(-.37)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체면가치를 기존의 권력 가치로부터, 겸손 가치를 기존의 전통 가치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규정한 개정 이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섯째, 가치 중요성 평가에서 문화권에 따른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가치 순위를 상중하의 범위로 나눠서 살펴본 결과, 각 범주에 포함된 가치의 유형은 거의 동일하였다. 이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평가가 다양한 문화권에 걸쳐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Davidov, 2008; Schwartz & Bardi, 2001; Schwartz et al., 2012). 이와 같은 범문화적 특성은 가치 이론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세 가지 욕구와 관련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가까운 이들과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달시키면서, 생산적 과업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적 해결책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집단의 목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기 지향적인 욕구나 소망을 충족시킨다(Schwartz, 2006; Schwartz, 2012). 이것이 개인의 가치와 우선성 평가에 반영된다. 한편, 세부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10개국 자료에 비해 16개 가치의 평균치가 모두 낮았으며, 가치 우선성을 반영하는 가치 순위별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결과를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적 성향이라는 문화적 차이의 관점으로 설명해 본다면, 개인주의적 성향의 사고는 개인의 능력, 생각, 개성, 선호와 보다 관련되며 차이, 대조, 분리와 같은 사고의 요소가 보다 강조된다. 반면, 집합주의적 성향의 사고는 맥락에 보다 의존하며 통합, 동화

(assimilation), 연결(connection)과 같은 사고의 요소가 보다 강조된다(예: Oyserman & Lee, 2008; Oyserman, Sorensen, Reber, & Chen, 2009). 다양한 가치를 자신의 개인적 선호도에 기초하여 차별적으로 분류해서 평가할 때 두 가지 사고 양식 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 또 한편으로는 가치와 관련된 경험과 교육,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다양성을 보다 중시하는 사회일수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가치 관련 경험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보편적 가치를 측정할 때, 서구 문화에서 더 이른 시기에 더 많은 가치가 보다 분명하게 분화되어 관찰된다는 연구를 통해 뒷받침 된다(Bubeck & Bilsky, 2004). 한편, 가치 이론에 근거하면(예: Schwartz, 2006), 가치는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서열화 되며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나(가치 우선성)에 따라 의사 결정의 방향과 행동이 결정된다. 우선성이 높은 가치들은(high-priority values) 자기개념의 주요 부분이 되며, 도덕적 딜레마 같은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성취, 권력-자원, 권력-지배 가치를 제외한 16개 가치의 평균치가 10개국 자료에 비해 모두 낮았다는 점과 가치 순위별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며, 특히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관련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세부 가치 별로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쾌락주의 가치와 자기결정-행위 가치가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박애-돌봄 가치와 박애-신뢰성 가치가 그 뒤를 이었다. 쾌락주의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된 것은 다양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다는 설명(한덕웅, 이경성, 2003)과 일치한다. 한편, Schwartz 등(2012)의 연구 결과에서도 쾌락주의는 총 10위중 6위로 평가된 이전 연구(Schwartz & Bardi, 2001)에 비해 3위로 상승하여 이는 세계적 추세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Hofstede(2011)는 최근 국가의 문화적 차원에 제약 성향(restraint)과 이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낮은 통제의 자유로운 성향(indulgence)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탐닉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낮은 통제의 자유로운 성향은 사회가 허락하는 자유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다. 쾌락주의의 상승은 이러한 새로운 문화적 차원이 요구되는 시대상의 반영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결정 가치가 높게 평가된 점은 개인주의 성향의 확산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한덕웅, 이경성, 2003; Hofstede, 2011).

한편, 국외에서 13위를 차지한 체면 가치가 국내에서 7위에 해당하였고, 권력-자원 가치와 권력-지배 가치가 국외에서 최하위인 한편, 국내에서는 전통 가치가 가장 낮은 순위에 해당하였다. 정서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는 관점에 따르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존경, 배려나 수치심과 같은 타인 중심적 정서(other-focused emotions)가 보다 중시된다(Markus & Kitayama, 1991). 문화 및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체면은 한국인의 타인 지향적 태도와 관련된 행동의 중추적 개념으로 포함되며, 한국인의 인간관계 및 사회적 행동에 선행적으로 요구되는 기제로 본다(최상진, 2000; 최상진, 김기범, 2000). 따라서 체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권력 가치와 전통 가치의 중요성이 대체로 낮

게 평가되는 것은 탈권위주의적, 탈물질주의적 가치로의 전환(Inglehart & Baker, 2000)이라는 세계적인 보편적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한국 사회는 탈물질주의 가치가 아직 서구 사회에 비해 확산되어 있지 않고 탈물질주의, 혼합, 물질주의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박재홍, 강수택, 2012), 권력, 성취 가치가 국외 자료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가치 순위에서 전체적으로 남녀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자기결정 가치를 남자가 더 중요하게 보는 반면, 보편주의-관용 가치를 여자가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가치의 평균치에서 성차가 확인된 것은 6개였는데, 자기결정-사고와 안전-사회적 가치는 남자가 더 높았고, 보편주의-관용, 보편주의-자연, 박애-돌봄, 박애-신뢰성 가치는 여자가 더 높았다. 자기결정 가치는 남자가, 보편주의 가치와 박애 가치는 여자가 더 높다는 결과는 68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Schwartz & Rubel, 2005).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성차는 사회적 역할 이론과 관련하여 도구적,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는 자율성(자기결정 가치와 관계됨)과 타인과의 조화, 양육적 측면이 강조되는 관계성(박애 및 보편주의 가치와 관계됨)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형이라는 관점(예: Bakan, 1966; Bem, 1974; Markus & Oyserman, 1989)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 안전 가치의 순위는 국내의 모두 안전-개인적 가치가 안전-사회적 가치보다 높았으나, 국내의 경우 안전-사회적 가치의 평균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근소한 차이이지만, 안전 가치에서 여자는 안전-개인적 가치를, 남자는 안전-사회적 가치를 보다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관련된 성역할에 관한 관점

을 포함하여 개인, 사회, 문화적 수준에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탐색과 확인은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한국 남자들의 경우 병역 의무 이행과 함께 사회적 안전을 보다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국내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을 간과할 수 없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PVQ-R과 유교가치 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개인의 도덕 함양과 관계되고 한국인의 특성으로 논의되는 ‘정’을 반영하는 유교가치 ‘인’은 대체로 보편주의 가치, 동조 가치, 박애-돌봄 가치의 순서로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사회 질서 유지에 관계되고 의례의 형식이 반영된 유교가치 ‘예·의’는 전통 가치, 안전-사회적 가치, 보편주의-자연 가치 순서로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유교가치 ‘인’과 가장 대립되는 것은 권력-자원 가치였으며, ‘예·의’와 가장 대립되는 것은 자기결정-행위 가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교가치 척도를 통해 유교가치관의 전체적 측면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인’과 ‘예·의’로 측정된 유교가치들은 가치 이론의 틀에 따르면 자기초월 가치, 보수 가치와 가장 잘 조화되며, 변화에 대한 개방성 가치와 자기고양 가치와는 대립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 사회는 서구 문화로부터 기원된 근대적 가치와 전통 문화에 기초를 둔 유교가치가 공존하면서 타협하고 갈등하는 문화의 ‘이중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최봉영, 2002, 2012). 보편주의와 박애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자기초월 상위 가치와 자기결정, 쾌락주의를 포함하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 상위 가치 모두가 가치 우선성의 서열상 높게 평가된 것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한편, 유교가치와 PVQ-R로 측정한 보편적

가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교의 수직적 구조, 불평등한 관계의 규정이 본 연구 결과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유교가치는 수직적 관계를 함축하는 보편적 가치와 대립되며(예: 권력 가치), 수평적 관계를 함축하는 보편적 가치들과 조화되었다(예: 보편주의 및 박애 가치). 이러한 결과는 유교적 세계관, 인간관, 사회관에 포함된 수직적 가치를 유교가치관 구성개념의 하나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예: 심경섭 등, 201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교가치 척도(류수영, 2007)가 인격 수양과 ‘인의예지’라는 구성개념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처럼 유교가치관을 이루는 구성개념이 폭넓고 다양할 수 있으며, 구성개념 내에서도 대립적 양상을 띠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고유의 문화 특수적 가치에 관한 이해를 더하기 위하여 유교가치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틀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 다른 한편, 전체적으로 유교가치와 PVQ-R의 체면 가치와는 의미 있는 관련을 보이지 않았지만, 문항별로 살펴보았을 때 유교가치의 ‘명분’과 PVQ-R의 체면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21). 이는 문화권에 따라 체면의 의미나 양상에 차이가 있을지라도(최상진, 2000; Goffman, 1967), 명분의 의미를 공유한다는 면에서 개념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문화권에 따른 가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의 가치 평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추정과 이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시도를 한 것이지만, 앞으로 보다 정교한 연구를 통해 이에 관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특정 지역의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일반화에는 한계가 따른다. 가치는 연령과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교육과 문화적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향후 다양한 연령층, 교육경험, 사회계층, 하위문화, 종교, 지역 등에 따라 연구의 대상을 확장하여 결과를 교차 타당화하고 일반화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2012년 가치 이론이 개정되면서 수정 보완된 PVQ-R에 대한 후속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하나의 가치에서 세분화된 것이라 할지라도 구분 전후의 가치가 동일할 수는 없다. 분화되거나 새로이 추가된 가치들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조건에서 PVQ-R을 활용하여 연구하고자 할 때는 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셋째, 위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중다특질-중다방법 분석 자료는 이론의 개정 전에 개발된 SVS와 개정 후 수정된 PVQ-R이었다.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검증에서 대체로 이론적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결과 해석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향후 개정된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를 활용한 반복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의 PVQ-R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가치 이론에서 가정한 세부 가치 및 4개의 상위 가치에 대한 구성 타당도와 PVQ-R과 SVS를 활용한 수렴 및 변별 타당도에 제한된 것이었다. 이론적 모델이 확장되고 이에 포함된 변수의 양이 많

을수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델 적합도 지수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예: Kenny & McCoach, 2003), 확인적 요인분석은 4개 상위 가치를 분리해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를 통해 세부 가치들이 이론적 모델에 따른 2종류의 상위 가치(성장과 자기보호, 사회적 초점과 개인적 초점)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그림 3 참조, 2종류의 상위 가치 표기는 생략되었으나 그림의 상하 좌우 측면에 해당함), 확장적이고 연속체적 특성을 갖는 모델에 보다 적합한 창의적 검증 방법이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선행 연구(Schwartz et al., 2012)에서 시도된 바와 같이, 가치와 외적 변수(예: 성별, 직업, 금전, 종교, 전쟁,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신념 등), 배경 정보(예: 나이, 학력), 태도(예: 독실함, 정치적 지향, 전공 선택), 성격(예: 권위주의, 모험추구) 및 행동(예: 사회적 참여, 음주행동, 휴대폰 사용)등과의 관계를 통해 가치 이론의 내용 구조와 예언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 역시 추후 연구의 과제일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가치에서 성차를 주요하게 다루지 않고 평균치에서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난 6개 가치의 유형만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회 문화적 영향과 성역할, 가치와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유형과 구조적 배열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다차원척도 분석을 19개 가치를 투입해서 부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남녀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가치의 세부 배열에서 일부 차이가 관찰되었다(예: 여자의 경우 박애-돌봄 가치와 박애-신뢰성 가치가 남자에 비해 공간상 더 가까이 위치하였으며, 동

조-대인적 가치가 남자와 달리 보편주의 세부 가치들 사이에 위치하였다). 이 부분을 포함하여 가치에서 나타난 성차에 관한 보다 정확한 확인과 검증은 더 많은 남녀 표본수를 확보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PVQ-R의 번역 과정에서 언어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차이를 이해하고 전달하며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의 하나였다. Schwartz의 최종 확인 이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이 일부 있어 추후 수정 가능성이 있다. 화법, 언술을 포함하여 언어 활용에서도 문화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사회에 특수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용뿐 아니라 단어 선택과 기술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 토착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내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치는 무수히 많고 중요한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변인과 관련된다. 특정한 사회, 집단, 가정에서 지향하고 권장하는 가치는 개인의 성격, 정서, 사고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chwartz, 2006; Silfver, Helkama, Lönnqvist, & Verkasalo, 2008). 가치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국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큰 쟁점이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문제행동을 다루고 있다(예: Arsenio & Lemerise, 2001; Camodeca & Goossens, 2005; Knafo, 2003; Menesini, et al., 2013; Hawley, 2007). 성장기에 경험하는 폭력은 우울, 불안, 대인 기피를 포함한 다양한 심리적 증상으로부터 자해,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 장단기적 폐해가 심각한바(예: Bond, Carlin, Thomas, Rubin, & Patton, 2001; Olweus, 1996;

Reijntjes, Kamphuis, Prinzie, & Telch, 2010; Schwartz, 2000), 폭력과 반사회적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의 하나로서 가치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러한 관심과 함께 이루어진 보편적 가치와 문화 특수적 가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한 개인으로서, 가정과 집단의 성원으로서, 더 큰 사회와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삶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에 관한 연구가 본 연구를 기점으로 하여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김연신, 최한나 (2009).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16.

김철민 (1999). 가치관 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개념 정의, 가치 요소의 측정방법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6, 53-78.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3.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류수영 (2007). 한국인의 유교적 가치측정 문항 개발 연구. *인사·조직 연구*, 15(4), 171-205.

박재홍, 강수택 (2012). 한국의 세대 변화와 탈 물질주의: 코호트 분석. *한국사회학회지*:

- 한국 사회학, 46(4), 69-95.
- 서지영, 정영숙 (2012). 연령에 따른 가치구조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21-44.
- 신현희 (2011). 자기초월 가치와 환경보존행동 및 친환경행동의도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경섭 (2014). 유교가치관 척도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경섭, 이누미야 요시유키, 윤상연, 서신화, 장양, 한성열 (2012). 유교가치관 척도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465-491.
- 정진곤, 이관춘 (1997).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 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개인의 가치와 기업체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림과 학원(편),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소화.
- 조남국 (1994). Schwartz와 Bilsky의 보편적 가치 구조 이론에 대한 방법적 비판: SSA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8(2), 55-69.
- 주영현 (2012). 한국 과학영재고등학생의 가치관 조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재호 (1994). 한국사회에서의 가치관 변화와 가치에 관한 명제의 도출. 심리과학, 3(1), 1-27.
- 차재호, 장영수 (1992). 한국 대학생들의 중요한 가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23-136.
- 최봉영 (2002). 한국 문화와 성격. 서울: 사계절.
- 최봉영 (2012). 한국인에게 나는 누구인가. 서울: 지식산업사.
- 최상진 (2000). 한국 문화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지난 20여년간의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얻은 문화심리학적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25-40.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한덕웅, 이경성 (2003).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 변화: 30년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49-67.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rikan, G., & Ben-Nun Bloom, P. (2014). Social values and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welfare. *Political Studies*, Article first published online 8 JAN, 2014, doi: 10.1111/1467-9248.12100
- Arsenio, W. F., & Lemerise, E. A. (2001). Varieties of childhood bullying: Values, emotion processes, and soci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10*, 59-73.
- Ball-Rokeach, S. J., Rokeach, M., & Grube, J. W. (1984). *The great American values test: Influencing behavior and belief through television*. New York: Free Press.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An essay on psychology and religion*. Skokie, IL: Rand McNally.
- Bardi, A., Lee, J. A., Hofmann-Towfigh, N., & Soutar, G. (2009). The structure of intraindividual valu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913-929.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ilsky, W., Janik, M., & Schwartz, S. H., (2011). The structural organization of human values:



- Evidence from three rounds of the European Social Survey(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2, 759-776.
- Bond, L., Carlin, J. B., Thomas, L., Rubin, K., & Patton, G. (2001). Does bullying cause emotional problems? A prospective study of young teenagers. *British Medical Journal*, 323, 480-484
- Brown, T. A. (200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New York, NY: Guilford.
- Bubeck, M., & Bilsky, W. (2004). Value structure at an early age.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3, 31-41.
- Camodeca, M., & Goossens, F. A. (2005). Social cognition, anger and sadness in bullies and victi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 186-197.
- Cambell, D. T. & Fiske, D. W. (1959).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by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Psychological Bulletin*, 56, 81-105.
- Caprara, G. V., & Steca, P. (2007). Prosocial agency: The contribution of values and self-efficacy beliefs to prosocial behavior across ag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6, 218-239.
- Chan, V. K. Y.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al human values and adolescent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ing. *Journal of Addictive Diseases*, 31, 183-194.
- Chan, V. K. Y. (2014). The general relationship between universal human values and adolescents' problem/pathological gambling in Macao: A parsimonious, quantitative model. *Substance use and Misuse*, 49, 189-201.
- Cieciuch, J. C., & Davidov, E. (2012). A comparison of the invariance properties of the PVQ-40 and the PVQ-21 to measure human values across German and Polish Samples. *Survey Research Methods*, 6, 37-48.
- Cieciuch, J. C., Davidov, E., Vecchione, M., Beierlein, C., & Schwartz, S. H. (2014). The cross-national invariance properties of a new scale to measure 19 basic human values: A test across eight count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published online before print March 19, 2014, doi: 10.1177/0022022114527348
- Cieciuch, J. C., & Schwartz, S. H. (2012). The number of distinct basic values and their structure assessed by PVQ-40.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4, 321-328.
- Dalgaard, P. (2002). *Introductory statistics with R*. New York: Springer.
- Davidov, E. (2008). A cross-country and cross-time comparison of the Human Values Measurements with the second round of the European Social Survey. *Survey Research Methods*, 2, 33-46.
- Davidov, E., Schmidt, P., & Schwartz, S. H. (2008). Bringing values back in: A multiple group comparison with 20 countries using the European Social Survey. Paper delivered at the 1st Europ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Conference, Barcelona, Spain.
- Döring, A. K., Blauensteiner, A., Aryus, K., Drögekamp, L., & Bilsky, W. (2010). Assessing values at an early age: The Picture-Based Value Survey for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2, 439-448.

- Durkheim, E. (1893/1964).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Glenocoe, IL: Free Press.
- Feather, N. T. (1995). Values, valences and choice: The influence of values on the perceived attractiveness and choice of alterna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35-1151.
-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 New York: Random House.
- Hawley, P. H. (2007). Social dominance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Why social competence and aggression may go hand in hand. In P. H. Hawley, T. D. Little, & P. C. Rodkin(Eds.), *Aggression and adaptation. The bright side to bad behavior*(pp.1-30). Mahwah, NJ: Erlbaum.
- Hayes, S. C., & Smith, S. (2010). 마음에서 빠져 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민병배, 문현미 역). 서울: 학지사.
- Helkama, K., Uutela, A., & Schwartz, S. H. (1992). Values system and political cognition. In G. Breakwell(Ed.), *Social psychology of political and economic cognition*(pp.7-32). Surrey: Academic Press/Surrey University Press.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 Hofstede, G. (2011). Dimensionalizing cultures: The Hofstede modeling context,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2, 1-26.
- Hofstede, G., & Bond, M. H. (1988). The confucius connection: From cultural roots to economic growth. *Organizational Dynamics*, 16, 5-21.
- Inglehart, R., & Baker, W. (2000).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 19-51.
- Kenny, D. A., & McCoach, D. B. (2003). Effect of the number of variables on measures of fi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0, 333-351.
- Kluckhohn, C. (1951). Values and value-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An exploration i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n T. Parsons & E. Shils(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pp.388-433).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nafo, A. (2003). Authoritarians, the next generation: Values and bullying among adolescent children of authoritarian fathers.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3, 199-204.
- Knoppen, D., & Saris, W. (2009). *Schwartz' theory of human values: Balancing homogeneity of reflective items and theoretical coverage*(RECSM Working Paper No. 9, 1-40). Barcelona, Spain: University Pompeu Fabra.
- Lepsley, D. K., & Power, F. C. (2005).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정창우 역). 서울: 도서출판 인간사랑.
- Little, B. R. (1998). Personal project pursuit: Dimensions and dynamics of personal meaning. In P. T. P. Wong & P. S. Fry(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193-21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 98, 224-253.
- Markus, H., & Oyserman, D. (1989). Gender and thought: The role of the self-concept. In M. Crawford & M. Gentry (Eds.), *Gender and thought: Psychological perspectives*(pp.100-127). New York: Springer Verlag.
- Menesini, E., Nocentini, A., & Camodeca, M. (2013). Morality, values, traditional bullying, and cyberbullying in adolesce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1*, 1-14.
- Olweus, D. (1996). Bully/victim problems at school: Facts and effective intervention.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5*, 15-22.
- Oyserman, D., & Lee, S. W. S. (2008). Does culture influence what and how we think? Effects of prim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Bulletin, 134*, 311-342.
- Oyserman, D., Sorensen, N., Reber, R., & Chen, S. X. (2009). Connecting and separating mind-sets: Culture as situate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217-235.
- Reijntjes, A., Kampluis, J. H., Prinze, P., & Telch, M. J. (2010). Peer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children: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Child Abuse & Neglect, 34*, 244-252.
- Roccas, S., Sagiv, L., Schwartz, S. H., & Knafo, A. (2002).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personal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789-801.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Sagiv, L., & Schwartz, S. H. (2000). Value priorities and subjective well-being: Direct relations and congruity effec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177-198.
- Schmitt, M. J., Schwartz, S. H., Steyer, R., & Schmitt, T. (1993). Measurement models for the Schwartz Values Inventor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 107-121.
- Schwartz, D. (2000). Subtypes of victims and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181-192.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y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New York: Academic Press.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 19-45.
- Schwartz, S. H. (1996). Values priorities and behavior: Applying a theory of integrated values systems. In C. Seligman, J. M. Olson, & M. P. Zanna(Eds.), *The psychology of values: The Ontario Symposium*(Vol. 8, pp.1-24). Hillsdale, NJ: Erlbaum.
- Schwartz, S. H. (2003). A proposal for measuring value orientations across nations. In *Questionnaire Development Package of the European Social Survey*(pp.259-319). Available from [www.european-socialsurvey.org](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
- Schwartz, S. H. (2005). Basic human values: Their content and structure across countries. In A. Tamayo & J. B. Porto(Eds.), *Values and behavior in organization*(pp.21-55). Petrópolis, Brazil: Vozes.
- Schwartz, S. H. (2006). Value orientations:

- Measurement,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across nations. In R. Jowell, C. Roberts, R. Fitzgerald, & G. Eva(Eds.), *Measuring attitudes cross-nationally-lessons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pp.169-203). London, UK: Sage.
- Schwartz, S. H. (2009). Basic values: How the motives and inhibit prosocial behavior. In M. Mikulincer & P. R. Shaver (Eds.), *Prosocial motives, emotions, and behavior: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pp.221-24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wartz, S. H. (2011). Studying values: Personal adventure,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2, 307-319.
- Schwartz, S. H. (2012). An overview of the Schwartz theory of basic values. *Online Reading in Psychology and Culture*, 2. <http://dx.doi.org/1-9707/2307-0919.116>
- Schwartz, S. H., & Bardi, A. (2001). Value hierarchies across cultures taking a similarities perspectiv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268-290.
- Schwartz, S. H., & Bilsky, W. (1987). Towards a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50-562.
- Schwartz, S. H., & Bilsky, W. (1990). Towards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78-891.
- Schwartz, S. H., & Boehnke, K. (2004). Evaluation the structure of human values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8, 230-255.
- Schwartz, S. H., Cieciuch, J., Vecchione, M., Davidov, E., Fischer, R., Beierlein, C., & Konty, M. (2012). Refining the theory of basic individu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 663-688.
- Schwartz, S. H., Melech, G., Lehmann, A., Burgess, S., Harris, M., & Owens, V. (2001). Extending the cross-cultural validity of the theory of basic human values with a different method of measurement.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32, 519-542.
- Schwartz, S. H., & Rubel. T. (2005). Sex differences in value priorities: Cross-cultural and multi-method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1010-1028.
- Schwartz, S. H., & Sagiv, L. (1995). Identifying culture specific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 92-116.
- Schwartz, S. H., Sagiv, L., & Boehnke, K. (2000). Worries and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68, 309-346.
- Silfver, M., Helkama, K., Lönnqvist, J. E., & Verkasalo, M. (2008). The relation between value priorities and proneness to guilt, shame, and empathy. *Motivation and Emotion*, 32, 69-80.
- Sortheix, F. M., Olakivi, A., & Helkama, K. (2013). Values, life events, and health: A study in a Finnish rural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331-346.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Berman(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7, pp.41-133). Lincoln: University of

- Nebraska Press.
- Triandis, H. C. (2007). Culture and psychology: A history of their relationship. In S. Kitayama & D. Cohen (Eds.),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pp.59-76). New York: Guilford.
- Vecchione, M., Casconi, T., & Barbaranelli, C. (2009). Assessing the circular structure of the Portrait Values Questionnair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5*, 231-238.
- Verplanken, B., & Holland, R. W. (2002). Motivated decision making: Effects of activation and self-centrality of values on choice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434-447.
- Walker, R. B. J., (2006). On the protection of nature and the nature of protection. In J. Huysmans, A. Dobson, & R. Prokhovnik (Eds.), *The politics of protection*(pp.189-203). New York, NY: Routledge.
- Weber, M. (1905/1958). *The protestant ethic and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Scribner's.
- Whitley, B. E., Jr. (1999). Right-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26-134.
- Wong, P. T. P. (1998a). Implicit theories of meaningful life and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 meaning profile. In P. T. P. Wong & P. S. Fry(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pp.111-14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ong, P. T. P. (1998b). Meaning-centered counseling. In P. T. P. Wong & P. S. Fry(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pp.395-435).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1차원고접수 : 2014. 04. 25.  
수정원고접수 : 2014. 07. 07.  
최종게재결정 : 2014. 07. 16.

##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rtrait Values Questionnaire-Revised (PVQ-R)

**Jeong-Won Choi**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rtrait Values Questionnaire-Revised(PVQ-R) measuring the basic human values based on the refined theory by Schwartz (Schwartz et al., 2012). The PVQ-R, the Schwartz's Value Survey(SVS), and the Confucian Values Scale were administered by 559 undergraduates. According to the result, adequate levels of internal consistency were shown in the reliability for the 19 value scales. Multidimensional scaling of the individual items and also of the scale means confirmed the circular structure of the 19 values and the four hierarchical values structure, respectivel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pplied separately to each of the four higher order values revealed an adequate model fit statistics for the hierarchical factor model of the higher order value. A multitrait-multimethod analysis of the PVQ-R in comparison with the SVS generally supported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Comparison of the priority in value obtained from this study to the data from 10 countries(Schwartz et al., 2012) revealed that the mean ratings from the Korean sample were generally lower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values being smaller; however, the value orders were mostly in agreement. In general, Confucian valu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transcendence and negatively with self-enhancement and openness to chang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findings from this study and suggestions on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Schwartz's value theory, the Portrait Values Questionnaire-Revised, value priorities, Confucian values